

美 인디애나에 최첨단 칩 패키징 생산기지 설립

SK하이닉스 “2028년 하반기부터 AI 메모리 제품 양산”

美 퍼듀대학교서 투자협약식
투자금 38.7억달러 규모
주 정부 투자유치 적극 나서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 주 (洲)를 최첨단 칩 패키징 생산 기지 설립지로 최종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West Lafayette)에 위치한 퍼듀대학교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협약식을 열고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웨스트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Purdue) 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나선다. 투자금은 38억 7000만 달러(약



SK하이닉스의 이천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5조 2000억 원)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홀콤(Eric Holcomb)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인디애나), 아라

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미국 정부 측 인사와 한국 정부 측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 김정환 주시카고 총영사가 참석

했다. SK그룹은 유정준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SK하이닉스 박노정 CEO, 최우진 부사장(P&T 담당)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인디애나에 건설하는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주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 지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도 풍부하다

는 점을 들어 인디애나로 최종 결정했다. 반도체 등 첨단 공학 연구로 유명한 퍼듀대가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하이닉스는 공장 건립 뿐 아니라 인디애나 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퍼듀 연구재단, 지역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계획된 국내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회사가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회사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팹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하고,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니팹’도 건설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 치지직, 韓 스트리밍 시장 승기 잡아

성공요인, 네이버 타 서비스 연계
아프리카TV, 부적절 콘텐츠 관리 안 돼
이미지 쇠신 위해 ‘숲’으로 사명 변경

트위치 한국 철수 후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을 두고 아프리카TV(숲)와 네이버 치지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이미지 쇠신을 위해 사명을 ‘숲’으로 변경한 뒤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치지직은 50억 원을 스트리머(크리에이터) 성장 및 지원을 위한 투자금으로 설정하고 네이버 내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이용자 록인(Lock-in·자물쇠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3일 와이즈앱·리테일·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앱 이용자 수에서는 네이버 치지직이 숲을 앞섰으나 이용자 시청시간은 숲이 2배 더 길었다.

와이즈앱·리테일·앱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대로 표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치지직이 앱 이용자 216만 명을 기록하며 숲 이용자 196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처음 베타서비스를 시작

한 치지직은 첫달 111만 명을 모으고 1월에는 153만 명, 2월에는 201만 명으로 빠르게 이용자 수가 늘었다. PC를 이용한 경우 집계되지 않았으나 베타서비스 시작 3개월만에 시장 1위 기업을 앞지른 만큼 고무적이다. 반면 사용시간에서는 숲이 7.1억 분으로 치지직의 앱 3.6억 분 대비 2배에 달했다. 1인당 사용시간 또한 6시간 2분에 달해 치지직의 2시간 49분보다 2배 길었다.

숲과 치지직은 지난해 12월 트위치가 한국시장 철수를 알린 직후 바로 트위치 내 대형 스트리머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숲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무진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며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치지직은 베타서비스 시작 전 전체적으로 초대형 스트리머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트위치 철수로 수혜를 입고 승기를 잡은 쪽은 치지직으로 보고 있다. 숲은 오랜 업력과 초대형 스트리머들, 충성심 강한 시청자들이 있음에도 다소 밀렸다는 평가다.

네이버 측에서 분석하는 치지직의 성공요인은 네이버 타 서비스와의 연계 지점이다. 현재 치지직은 스트리머 페이지에 지정된 네이버 카페가 연동돼 있어 실시간으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네이버 관계자는 “치지직을 이용하는 스트리머가 아니라도 대다수 스트리머 팬 카페는 네이버 카페에 자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입과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스트리머의 팬들에게 큰 효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치지직은 계속해서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계를 넓히며 스트리머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구독권을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의도치 않게 숲이 치지직의 성장을 도왔다”는 주장도 있다. 숲이 ‘막장’ 콘텐츠 등 다양한 사건 사고로 외부적 이미지가 나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트리머들로서는 콘텐츠 성격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는 바다. /김서현 기자

SKT, ‘이프랜드’ 동남아시아 확장 가속화

셀콤디지, 체리와 퍼블리싱 본 계약

SK텔레콤이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의 동남아시아 확장을 가속화 한다.

SKT는 말레이시아 통신 점유율 1위 기업 ‘셀콤디지(CelcomDigi Berhad)’, 필리핀 IoT 플랫폼 기업 ‘체리(Cherry)’와 이프랜드 퍼블리싱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T는 셀콤디지, 체리와 현지 최적화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을 협력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 지역 대상 서비스를 총괄한다. 셀콤디지와 체리는 ▲현지 브랜드 제휴 ▲현지 특화 마케팅 ▲현지 1차 고객 지원에 주력한다.

연내엔 이프랜드에 AI 기능도 도입한다. 현지 언어·문화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NPC인 ‘소셜 AI agent’나 각국 문화에 맞는 3D 아이템·공간을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3D AI 스튜디오’가 그 예다.

SKT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미주, 남미 등에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메타버스와 AI의 시너지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서도 다른 환경의 국가에서 접속해도 이질감 없는 ‘글로벌 AI 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말레이시아 셀콤 디지 쿠칸 티루니바카라스 CIO(왼쪽)와 SK텔레콤 양택석 메타버스 CO 담당이 계약 체결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모습.

/SK텔레콤

타버스’ 서비스로 이프랜드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 스페인어 등 지원 언어 추가 ▲접속 지역별 고객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Curation) 기능 등을 선보이며 글로벌 유저의 메타버스 사용경험을 높일 계획이다.

양택석 SKT 메타버스 CO 담당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프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현지 퍼블리셔와의 협력 및 AI 도입을 통해 ‘글로벌 AI 메타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ngia_tea@

“하이퍼클로바X, 성능평가서 우수한 성적”

네이버클라우드, 테크니컬 리포트 공개

네이버클라우드가 초대규모 AI(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의 테크니컬 리포트를 4일 공개했다. 테크니컬 리포트는 AI 모델의 세부 정보를 소개하는 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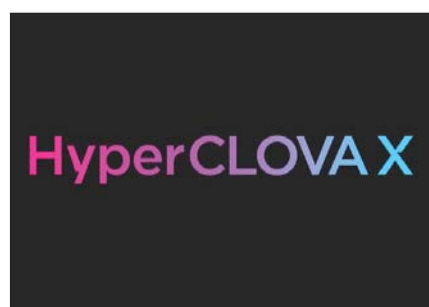
리포트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는 성능 평가에서 글로벌 오픈소스 및 폐쇄형 모델들과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보다 높은 종합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어는 물론 일반 상식, 수학, 코딩 부문에서 비교 평가를

위해 선정한 1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폐쇄형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하이퍼클로바X는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다국어 능력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다. 학습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어와 영어 정보를 활용해 제3의 언어로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다. 일본어, 아랍어, 힌디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언어 능력을 평가했을 때, 하이퍼클로바X는 주요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해 리포트에서 선정한 9개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중국어에서만 같은 모델들 중 2위를 기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의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전학습 데이터는 대부분 한국어, 영어, 코드 데이터로 구성된다. 학습 데이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우 짧거나 반복적인 저품질 문서는 데이터셋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삭제했다. 또한 정렬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와 지시를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고도화했다. /김서현 기자

KT, 소상공인 결합상품 직관적 개편

‘으랏차차 패키지’ 출시

KT가 직관적으로 개편한 소상공인 결합상품 ‘으랏차차 패키지’를 5일 출시한다.

KT는 기존 소상공인 결합 상품인 ‘사장님 성공팩’ 명칭을 ‘으랏차차 패키지’로 바꿨다. 상품 구조는 필수 상품·기본 선택·추가 선택 등 3단계에서 필수 상품·기본 선택 2단계로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으로 재구성했다.

으랏차차 패키지는 소상공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모바일, TV, 가계정보알림메시지, 통화매니저(PC) 등 통신상품 외에도 폐쇄회로(CC)TV, 카드결제서비스 부가통신망(VAN) 등 매장 솔루션 중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인받는 결합상품이다.

KT는 이번 개편 시 매장으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인공지능(AI)이 응대하고 가게 홍보부터 고객 관리까지 가능한 ‘AI 링교환’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서빙이나 매장 방역을 맡는 ‘AI 로봇(서빙/방역)’을 패키지에 추가한다. /구남영 기자